

### 37. 취부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렴

성별	남	나이	24세	직종	취부공	업무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**1. 개요:** 근로자 권○○은 23세 때인 2004년 12월 취부사로 근무하던 중 2005년 4월부터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지염 및 대엽성 폐렴, 범발성 혈액응고증,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받아 2005년 5월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제출하였다.

**2. 작업환경:** 사업장은 선박제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취부-용접-연마 공정을 거쳐 선각(선수 및 선미) 블록을 조립하는(PE팀) 한편 블록의 대조립(대조팀)도 한다. 23세 때인 2004년 12월 입사하여 PE팀 취부사 보조로 근무하면서 PE장에서 선각 블록의 취부(CO2 가용접) 작업을 하였는데, H-Beam을 받치는 곳은 미리 도장되어 있는 블록의 페인트를 태운 후 가용접을 하였고, 산소 절단 작업도 하였다. 주간에 8-9시간씩 근무하였다. 작업환경측정 결과 취부사 2명의 용접흡 노출수준은 1.19 및 1.34 mg/m<sup>3</sup>이었고 철, 망간, 크롬, 구리, 아연은 각각 최대 0.0532, 0.0095, 0.0013, 0.0041, 0.0308 mg/m<sup>3</sup>이었다. 또한 이산화탄소는 검지관으로 각각 6회씩 측정하였을 때 600-700 ppm이었으며,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은 검출되지 않았다.

**3. 의학적 소견:** 2남 중 막내로 어머니 및 형은 모두 건강하다고 하며,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하루 반 갑 정도씩 10년간 흡연하였으며, 주 1회 맥주 2병 정도씩 음주하였다. 2005년 4월 출근하여 작업하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몸살 기운이 있어 조퇴하였고 증상이 심해져 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.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3일 전부터 시작된 고열 및 우측 흉통으로 2일 전 입원하여 증상은 호전되었으나, 하루 전 기침과 함께 피가 묻은 가래가 나타나 전원되었다고 하였다. 응급의료센터에서의 검사소견에서 우상엽 및 우하엽의 폐렴 소견이 있었으며, 급성 신부전 및 범발성 혈관내 응고(DIC)도 동반되어 있었다. 기관지세척액에서는 *Acinetobacter baumannii* (anitratu)가 배양되었다.

**4. 결론:** 근로자 권○○의 폐렴 등은,

- ① 기관지세척액의 세균배양검사에서 *Acinetobacter baumannii*가 검출된 대엽성 폐렴 및 그로 인한 패혈증(급성 신부전, 범발성 혈관내 응고)으로 진단받았고,
- ② 입사 후 발병 때까지 4개월간 취부 보조 작업을 하면서 초기 2개월간은 잔업 등 작업 시간이 많다가 점차 줄어들었는데,
- ③ 취부 보조 작업으로 인해 폐렴 발병 당시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만큼 과로하거나, 작업 장소가 감염성 폐렴을 유발할 만한 특수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어,

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.